

민주, 내년 지방선거 당원 주권 확대... 경선 판도 변화 예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투표 비율 50%서 5~10% 상향 논의...조직력 앞세운 후보에 유리 컷오프 최소화, 여성·청년 전략 공천도 변수...내년 2월말부터 경선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 룰 정비에 돌입하면서 지역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텃밭 호남에서 당내 경선은 본선보다 치열하고, 공천 룰에 따라 후보간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정청래 대표가 '당원 주권시대'를 공헌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소폭 높일 것으로 보여 당내 경선 판도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 당내 경선은 당원투표 50%와 일반 여론조사 50%로 진행되지만 당원투표 비율을 5~10%를 높이면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한 후보자가 더욱 유리해질 수 있다. 또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청년 전략 공천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어 후보들의 눈치 싸움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달 말까지 후보 자

격에 대한 심사 규정을 정비하고 공천 룰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청래 당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 호남을 찾아 컷오프(공천 배제) 최소화와 당원 참여 확대를 약속한 만큼, 민주당 공천 룰에도 이 같은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당원 참여를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공천 심사 과정에서도 당원의 선택이 가장 중요해 질 것"이라면서 "무조건적인 컷오프를 줄이는 대신 무적격자를 숙여낼 수 있는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당 내에서는 당원 투표 비율을 현재 50%에서 소폭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대의원의 투표비율을 줄이면서 당원에게 선택권을 늘렸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5~10%가량 늘리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8·2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

를 55% 반영했으며 사실상 국회의원 원내대표 선출 시에도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등 각종 선거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당원 투표비율이 상승하면 공천 결과에도 큰 변화를 줄 수 있다. 과거 민주당 공천 과정에 일반여론조사의 응답률이 낮아 권리당원의 조직적 투표를 이끌어낸 후보가 유리했던 만큼, 권리당원 투표 비율이 커지면 조직력을 앞세운 후보군이 경선에서 더욱 유리해 질수도 있다.

정 대표가 컷오프 최소화를 발표해 경선 과정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또 최근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일부를 청년과 여성에게 우선 공천하는 방안도 당내에서 심도 깊게 논의됐고 일부 전략공천하는 안도 제안됐다.

민주당은 오는 12월 중순께 선출직 평가위원회를 열어 현 광역단체장 등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고, 내년 1월에는 중앙당 예비 후보자 자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이후 선거를 100일 앞둔 2월 말에는 중앙당·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설치해 경선을 치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남, AI 역할 나눠 시너지 키워야”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 “컴퓨팅 센터 등 기능 구분해 협력”

광주와 전남이 각각 AI(인공지능) 컴퓨팅 센터와 집적단지, 민간 초대형 데이터센터로 역할을 나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은 “광주와 전남은 경쟁 대상이 아니라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구분해 체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AI컴퓨팅센터를 광주에 유치하고, 민간 중심 전남 데이터센터와 연계해 ‘연산·데이터·응용’의 분업을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중앙정부·정당·지자체·기업·대학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 구조로 각 거점의 본연 기능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광주시가 진행 중인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시민



서명에는 12일 기준 12만 명이상이 참여해 ‘광주=국가AI 컴퓨팅센터’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국가 거점(광주)과 민간 거점(전남)의 이원화가 비용·속도·안정성에서 합리적이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한편 최근 전남 민간 데이터센터 추진 보도가 나온 직후, 정치권 인사가 SNS에 ‘광주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수정·삭제해 논란이 일었고, 이에 대해 광주시는 “전남은 민간, 광주는 국가”라는 기본 구도를 재차 확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정병호 기자 jusbh@

국감 브리핑

“광주, 싱크홀 원인 지하 ‘공동’ 84% 방치”

정준호 “전국 두번째로 많아”

광주에서 최근 5년간 확인된 지하 ‘공동’이 141곳에 이르지만 조치 완료는 25건(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 갑)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전국 지자체 지하탐사 8474km에서 공동 872개가 확인됐다.

이 중 보수 완료는 479개에 불과했고 45%인 393개가 여전히 방치 상태였다. 광주는 경기(219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고, 전남은 6개로 집계됐다.

국토안전관리원 표준매뉴얼 기준상 방치된 공동의 74%가 ‘긴급·우선’ 등급에 해당한 것으로 나



타났다. 광주는 다수 지점이 비복구 상태여서 등급별 처리 기한을 맞추는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광주는 지점별 위험도와 관로·공사 이력을 결합해 즉시 매몰 대상을 앞세우고,

상하수도·도로·도시철도 등 부서 합동 점검과 야간 긴급 보수 기능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싱크홀 사고 원인인 지하공동은 예방이 가능한 재난”이라며 “공동 발견 후 조치결과를 안전관리원이 통보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국립대 교직원 음주운전 징계 수위 제각각”

강경숙 “가이드라인 필요”

전남대에서 최근 5년 새 음주운전 징계를 받은 교직원이 1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비례)의원이 전국 38곳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대 교직원 음주운전 징계는 2020년 40건, 2021년 27건, 2022년 31건, 2023년 36건, 2024년 33건이었다. 매년 30건 안팎 징계가 이뤄졌다.

대학별로는 전북대 17건, 서울대 15건, 전남대 14건, 강원대 12건, 경상국립대 12건 순이었다.

전남대에서는 교수·조교·행정직 등 직군을 가리지 않고 징계가 이어졌다.

2020년 조교·교수·조교수에 대한 징계 처분이



이어졌고, 2021년에는 조교와 조교수, 2023~2024년에는 교수·부교수의 징계와 행정직에 대한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대부분 국립대에서 감봉·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내려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부 대학은 혈중알코올농도 0.1%대 초만 사려에 정직, 다른 대학은 감봉을 결정하는 등 처분 수위가 제각각이었다.

강 의원은 “음주운전은 개인 일탈을 넘어 사회 안전과 직결된다”며 국립대 공동의 ‘표준화된 징계 가이드라인’ 도입을 촉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李 정부 첫 국감 돌입...여야 대격돌

조희대 대법원장 쟁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놓고 강대강 전선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전제 정산·개혁 완성”을 내세워 12·3 비상계엄 진상 규명과 검찰·언론·사법 3대 개혁을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내란 프레임으로 민생이 방치됐다”며 경제·안보·치안 등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부각, 정책 대안 제시에 주력하겠다고 맞선다.

조반 격전지는 법사위·운영위·과방위다.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 중인 출석과 대법원 현장 국감을 추진한다.

과방위에선 방통위 폐지 이후 민간 신분인이 된 진숙 전 위원장의 출석 필요성을 놓고 충돌이 예고

된다. 행안위에선 이 전 위원장 체포·석방 과정을 둘러싼 경찰·사법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운영위에선 김현직 대통령실 부속실장 중인 채택 문제가 최대 뇌관이다. 국민의힘은 출석을 압박하고, 민주당은 “정쟁용 공세”라며 거부 기류다.

기재위·외통위·산자중기위에선 한미 관세협상, 대왕고래·원전 계약,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전·현 정부 현안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프레임 전쟁 속 민생·개혁·사법 이슈가 동시다발로 충돌하는 ‘전면전 국감’이 펼쳐질 전망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크!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
에서 크!
바로 바로 확인까지 크!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겐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치 평 지 점 062)381-8212~3
쌍 촌 지 점 062)381-6551~2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동 립 지 점 062)513-8521~3
운 암 지 점 062)527-3295~6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유 덕 지 점 062)373-3235~6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운암혁신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유타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